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30호 HYUNBULNEWS.COM 2025년 5월 7일(음력 4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치유와 희망의 봄을 발원하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참화로 많은 국민이 아픔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 의성 고운사 대웅전에서 '치유와 희망의 봄'을 발원하는 봉축법요식이 봉행됐다. 가까스로 화마를 피한 대웅전 앞에는 사찰 복원과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색색의 연등으로 걸렸다. 사진=정현선 작가

불기 2569년 봉축법요식 "본래 부처로 살자"

5월 5일, 조계사에 사부대중 1만명 운집
진우 스님 "집착 비우면 공덕 실현" 강조
지도자 · 공직자에 "공동체 위한 정의" 당부
사회적 약자 ·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 참석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5월 5일 오전 10시, 조계종 총본산인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봉행된 봉축법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 등 불교계 주요인사와 정관계 인사 등 약 1만명이 참석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가르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봉축법요식에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정의당 권영국 후보,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가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날과 겹친 올해 봉축법요식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원로의장 자광 스님이 4명의 어린이에게 마정수기를 내리며 미래 부처가 될 것을 수기하며 시작됐다. 이어 전통적인 '육법공양'의 의미를 되살려 등, 향, 꽃, 차와 과일, 쌀 등 여섯 가지 공양물을 모두 갖추어 부처님 전에 올렸다. 무엇보다 차별 없는 세상을 발원하며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대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사회적 약자들도 육법공양에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부처님 탄생을 봉축하며 종정 성파 대종사는 원로회의 의장 자광 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화엄경〉의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를 강조하며 "존엄성을 인정하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을 극락처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님 안목으로 세상을 살면 걸음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행하는 일마다 무진법문이 된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봉축사에 앞서 대중들은 선명상을 실참했다. 이후 진우 스님은 봉축사에서 '일체유심조'를 강조하며 "세상 모든 것은 오직 내 마음이 짓는 바임을 일깨워주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으로 이어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진우 스님은 "고통은 내 마음 속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지어낸 결과"라며 "이러한 번뇌가 사라질 때 비로소 세상은 고통없는 극락정토로 변모하게 된다"고 말했다.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5월 5일 오전 10시 전국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총본산 서울 조계사에는 1만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 탄생을 축하했다. 사진제공=조계종

이어 정치권에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스님은 "삼독심을 비우고 자비와 복덕의 보살심으로 맑은 정치,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면서 "진정한 정의는 공동체를 위한 무욕의 정의이며 그 안에서 국민의 자유와 평화가 꽃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자타불이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서로를 보살피는 굳건한 연대의 힘으로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외된 이웃을 보듬어 안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각 분야에서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보여준 불자들을 격려하는 불자대상 시상식도 가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정병국 참좋은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승기 배우, 임시현 양궁선수, 김윤봉 법률사무소 사무장에게 상패를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날 법요식은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의 발원문 대표낭독으로 회향했다. 사부대중은 "고통받는 세상의 모든 인연과 함께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날마다 수행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무공저 소리에 보리 들판 춤추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을사년 하안거 결제 법어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5월 12일 을사년 하안거 결제를 앞두고 치열하게 수행 정진할 것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렸다.

성파 대종사는 "무명업장을 끊고 확철대오하기 위해 정진하는 수행자는 헝클어진 실을 풀려고 하지 말고 한칼에 끊어야 한다"고 지도하며 "화두참구가 성성(惺惺)하면 무아의 이치가 드러나고 그 마음이 청정하기가 허공과 같아져서 부처님과 조사께서 체득하신 신통묘용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게송 "시를 배우는 일 처음 선을 배우는 것 같아 / 깨치지 못한 이 널리 참방해야 하네 / 어느 날 깨우쳐 정법안을 얻으면 /손 가는 대로 문장은 이루어진다네!"를 읊으며 자유로운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했다. 임은호 기자

다음 주는 봉축 관계로 휴간합니다.


Where is your mind?
낙산 묘각사 템플스테이
Myogaksa Templestay
도심속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
한국의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하며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mygaktemple@naver.com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낙산묘각사
☎ 02.763.3109
